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주소: 전주시 완산구 895신동 344-22 완광대학교병원 2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음 11월 12일) 제19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해 첫날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30인 미만 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도, 사업 신청접수 위해
시군별로 전담창구 설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편의점, 이,미용업, 음식점 등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을 현행 60%에서 90%까지 확대(신규가입자 기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규 건강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는 50%보험료 경감 및 세액공제도 제공된다. 아울러,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사업주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의 간접지원을 통해 매월 1회 지급된다. 전북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신청접수를 위해 각 시군, 읍면 동 별로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주의 신청과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주들이 제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본보 선정 '두줄로 알아보는 2017년 전북 10대 뉴스'

- | | | | | |
|---------------------|----------------------------|------------------------------|---------------------------|------------------------------------|
| 1 박근혜 파면 전북도민 '환호성' | 2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북 주요 인사 대거 중용 | 3 '차보다는 사람 우선' 전주역 앞 첫마중길 조성 | 4 학교폭력부터 성추행까지 전북 교육현장 파문 | 5 U-20월드컵... 태권도선수권... 국제 체육행사 성황리 |
| 6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 7 재량사업비 비리 전 현직 지방의원 범정행 | 8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서 징역형 | 9 교육부 서남대 폐쇄 명령 학교 살리기 분주 | 10 전북현대, 4년 연속 K-리그 최강 입증 |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날갯짓 '18년이 지나도 변함없어라'

익명의 독지가, 주민센터에 6027만9210원 전달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새 밀한과를 녹였다. 전주는 해마다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의 행적을 좇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시민들이 늘면서 '천사도시'로 불려왔다. <관련기사 4면> 28일 오전 11시 26분,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동사무소 뒤로 가면 돼지저금통 놓여있습니다."라는 40~50대 중년남성의 목소리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얼굴 없는 천사를 오매불망 기다려온 노송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통화내용에 따라 주민센터 뒤편 천사 함터를 찾아가니 나무아래에 A4용지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이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6027만921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중년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외에는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천사가 올해로 18년째 총 19차례에 걸쳐 몰래 놓고 간 성금은 총 5억5813만8710원에 달한다. 또한, 천사가 남긴 편지로 보이는 A4용지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소년소녀가장어려운 한해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아질꺼라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교를 통해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중노2동주민센터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내년 1월 2일 신년호 발행합니다.

매일 INDEX
16면 - 올 한해 전주시정 결산

하이트진로

2018
새해에도 더 맛있게
EXTRA COLD

ICE POINT FILTRATION SYSTEM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력 손실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